

LG생활건강, 매출·영업이익 호조

1/4분기 화장품·음료 부분 모두 양호 ... 영업이익 29분기 연속 증가

LG생활건강은 1/4분기 매출이 9702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7.0%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1304억원으로 18.0% 늘었다고 4월24일 발표했다.

순이익은 916억원으로 17.0% 증가했다.

LG생활건강은 매출이 2005년 3/4분기 이후 27분기 연속, 영업이익은 2005년 1/4분기 이후 29분기 연속 증가했다고 밝혔다.

1/4분기에는 국내외 시장에서 화장품 매출과 영업이익이 호조를 보이면서 전체 영업실적을 견인했다.

화장품부문은 더페이스샵의 해외사업 강화를 앞세워 매출이 3905억원으로 24.6%, 영업이익은 704억원으로 25.1%가 증가했다.

음료부문은 매출이 2437억원으로 17.5%, 영업이익은 150억원으로 6.9% 늘었다.

해태음료는 유통 재고를 정비하고 구조조정을 시행해 매출이 52.1% 급증해 501억원을 기록했고 적자폭도 크게 줄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2/04/25>